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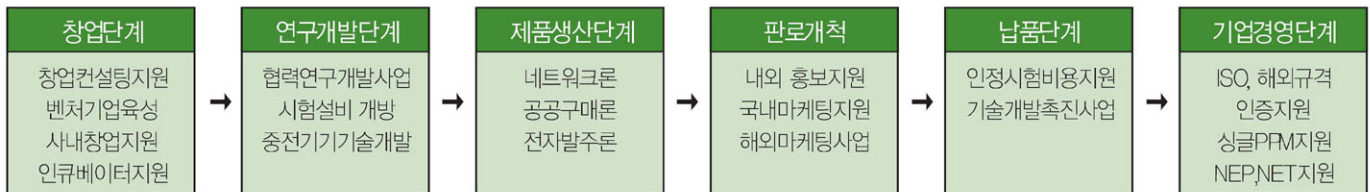
정부평가 2년 연속 1위, 한전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지원배경

한국전력은 일자리의 90%를 차지하고 국가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93년부터 공기업으로서 최초로 중소기업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는 한국전력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전력산업분야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07년 3월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부평가에서 24개 공공기관 중 평가항목 전 부문에서 1위를 달성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한전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특징

“성장단계별 맞춤형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지원사업 13개, 세부항목 31개)



“한전 Brand Power를 이용한 대·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 진출”

한전은 낮은 브랜드 인지도와 정보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지난 2006년부터 KEPCO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동반 해외시장 진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한전 해외지사, Kotra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동반 중소기업의 수출실적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올해에는 3회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이 예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전산화 및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중소기업지원 통합시스템(Siss)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3월에서 12월까지 시스템 1차 개발 추진후 2007년 1월부터 기본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이후 2차 고도화 작업을 통해 지원사업 전산서비스 확대, 1만9천여 개 기업 데이터 확보, 대량메일 발송과 같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구축 등의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한편 한전의 통합시스템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여 전력그룹사 중소기업지원 통합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2007년 10월 ~ 2008년 2월) 한전 통합시스템과의 성공적인 상호 연계작업(2008년 3월 28일)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력그룹사 차원의 통합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사업 전개가 가능해졌다.



☞ 중소기업 지원 현황

가. 협력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비의 75%이내/5억 원까지 무상지원
- 협력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제품에 대한 한전의 구매확대

나.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시장개척과 국제전시회 출품사업 지원
- 수출실적 4,724천 달러(2005년 ~ 2007년)

2008년 러시아 국제전시회



다. 정보화 기술개발지원

- 경영·생산관리 업무 등을 전산시스템화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기업 규모에 따라 ERP(전사적 자원관리), EP(기업포탈), ASP(맞춤형 IT서비스) 등으로 특화된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함

라.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

- 전력기자재 제조·생산 중소기업체 및 전기공사업체 대상
- ISO 9001, 14001시리즈와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Single PPM 로드맵 주요 내용

| 구 분 | 초기 단계 | 확산 단계 | 정착 단계 |
|------|-----------------------------|---|---|
| 기 간 | 2007 | 2008 ~ 2009 | 2010 ~ |
| 지원대상 | *배전기자재 제조기업 - 배전품질등급 C등급 | *배전품질등급 C등급 *배전품질 AB등급 확대 *송변전기자재 *제조기업 확대 | *배전기자재 제조기업 *송변전기자재 제조기업 *전 전력기자재 *제조기업 확대 |
| 지원예산 | 총 1억원 수준/년 | 총 1억원 수준/년 | 총 1억원 수준/년 |

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확보를 위해 전력그룹사 차원의 공공구매 목표 할당제 시행
- 연구개발 제품에 대한 활용촉진 노력 전개, 국내외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력그룹사 차원의 공공구매 지원협의회 개최 등 다각적인 지원활동 전개

바. 혁신형 전력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 1998년부터 격년으로 혁신형 전력벤처기업을 선정 및 다양한 지원을 통한 적극인 육성정책 실시
- 2007년 제7기 혁신형 전력벤처기업 37개 사가(인증기간 : 1997년 4월 ~ 2009년 3월) 선정
-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홍보 지원사업 우대 및 물품입찰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분야 지원 전개

☞ 향후계획

공공부문 상생협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한국전력은 향후에도 협력 중소기업과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첫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지원효과가 큰 사업(Single PPM 품질혁신활동 지원확대, NEP 및 NET 인증 지원제도 신규 도입 등)에 대한 지원 확대·강화와 효과가 미비한 사업(PL지원 등)에 대한 지원 축소·폐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분야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상생협력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이다. 둘째, 주요 국가간 FTA 협상 타결 등 심화되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향후에도 KEPCO Brand Power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며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셋째, 한전은 2005년 공기업 최초로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이래 원가절감, 품질개선, 자재적기조달, 신개발공법 성과공유제 등 다양한 한전 고유의 성과모형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향후에도 한전 고유의 성과공유 모델들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력그룹사 중소기업지원 통합시스템 본격 활용, 권역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등 전사적 중소기업 지원마인드확산을 위한 노력과 연구비 집행카드제 도입(일명 '성공카드제') 등 지원사업의 투명성 강화노력을 전개하여 향후 한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더욱 더 광범위하고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